

**웨스 앤더슨 감독 X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제작진**

**할리우드 비주얼 대가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마스터피스!**

독보적인 연출력의 웨스 앤더슨 감독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제작진들의 환상적인 협업으로 탄생한 <프렌치 디스패치>가 11월 관객들을 매료시킬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로 주목받고 있다. [수입/배급: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 감독: 웨스 앤더슨 | 출연: 틸다 스윈튼, 프란시스 맥도맨드, 빌 머레이, 애드리언 브로디, 오웬 윌슨, 레아 세이두, 티모시 샬라메 외 | 개봉: 2021년 11월 18일]

**미장센의 대가 웨스 앤더슨 감독 X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제작진!**

**할리우드 최정예 비주얼리스트들이 선보이는 환상적인 팀워크!**

**11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황홀한 비주얼 예고!**



할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웨스 앤더슨 감독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제작진이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로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갑작스럽게 마지막 발행본을 준비하게 된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의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취재한 4개의 특종을 담은 작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문라이즈 킹덤> 등을 통해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매 작품 자신만의 독특한 미학을 스크린에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 팔레트를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색감과 영화의 컨셉을 확고히 보여주는 디테일한 소품, 완벽주의자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유니크한 연출은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관객을 매료시켰다. 3년 만에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로 돌아온 웨스 앤더슨 감독은 화려한 색채와 흑백 시퀀스의 전환, 일러스트 레이아웃 등 전작을 뛰어넘는 다양한 연출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을 선보일 전망이다.

특히, <프렌치 디스패치>는 웨스 앤더슨 감독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제작진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개들의 섬>,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문라이즈 킹덤> 등을 통해 웨스 앤더슨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함께하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선보였던 프로덕션 디자이너 애덤 스톡하우젠은 물론 웨스 앤더슨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까지 카메라에 완벽히 담아내는 로버트 예맨 촬영 감독,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밀레나 카노레로 의상 감독까지. 대체불가 할리우드 최정예 제작진들의 황홀한 팀워크로 완성된 <프렌치 디스패치>가 선사할 독보적인 비주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미장센의 대가 웨스 앤더슨 감독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제작진의 환상적인 팀워크로 완성된 <프렌치 디스패치>는 11월 18일(목) 개봉 예정이다.**

**[Synopsis]**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 뉴스레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다!**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오래된 가상의 도시 블라제

다양한 사건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미국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편집장의 죽음으로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마지막 발행본에 실을 4개의 특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당신을 매료시킬**

**마지막 기사가 지금 공개된다!**

**영화 정보**

|  |
| --- |
| 제 목: <프렌치 디스패치>  원 제: THE FRENCH DISPATCH  감 독: 웨스 앤더슨  출 연: 틸다 스윈튼, 프란시스 맥도맨드, 빌 머레이, 제프리 라이트, 애드리언 브로디,  베니시오 델 토로, 오웬 윌슨, 레아 세이두, 티모시 샬라메, 리나 쿠드리,  스티브 박, 마티유 아말릭  수입/배급: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북미 개봉: 2021년 10월 22일  국내 개봉: 2021년 11월 18일  관람 등급: 15세 관람가  러닝 타임: 107분 |

영화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스콘 (Tel.02-334-8855/E-mail. scon@scon-is.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